OPEN ACCESS

2000년대 이후 신문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한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 분석

A Case Study of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on Newspaper Big Data Since the 2000s

송 현 경 (Hyunkyung Song)*

목 차

1. 서 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방법
4. 분석결과
5. 결 론

초 록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국내에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일간지와 지역일간지 총 57종을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등의 검색어를 통하여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적자유 사례를 다룬 396건의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본 연구는 TF-IDF 분석, N-gram 분석, 토픽모델링을 수행하였다. TF-IDF 분석에서 '금서', '유해', '폐기', '제한', '검열'과 같은 단어들이 도출되어 지적자유 침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교육', '채식주의자'과 같은 단어들이 도출되어 어린이 및 청소년 성교육 도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 등이 지적자유 논의에 주로 등장함을 알 수 있었다. 토픽모델링 결과, '성교육 도서', '인터넷', '성범죄 작가 도서', '소설 채식주의자', '역사 도서', '금서읽기주간' 등 6개의 토픽으로 구분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적자유의 수호를 위한 방안으로 개별 도서관들의 지적자유에 관한 정책 수립,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한 세대별, 주제별 지적자유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major cases related to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that have attracted social attention in Korea from 2000 to 2024 and to explore effective strategies for protecting intellectual freedom. For this purpose, a total of 396 articles dealing directly with library-related intellectual freedom cases were collected from 57 national and regional daily newspapers published between January 1, 2000, and December 31, 2024, using keywords such as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The study applied TF-IDF analysis, N-gram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o these articles. Results from TF-IDF analyses identified terms such as "banned books," "harmful materials," "removal," "access restriction," and "censorship," indicating instances of intellectual freedom infringements. Additionally, terms such as "children," "youth," "sex education," and "The Vegetarian" revealed that books on sex education for children and youth, as well as Han Kang's novel "The Vegetarian," were frequent subjects of intellectual freedom discussions. Topic modeling identified six topics: "sex education books," "internet," "books by authors convicted of sex crimes," "The Vegetarian," "historical books," and "Banned Books Week." In light of these findings, the study recommends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measures to safeguard intellectual freedom, including the formulation of intellectual freedom policies by individual libraries and the establishment of programs categorized by generation and theme, led by the Korean Library Association.

키워드: 지적자유, 검열, 빅데이터, TF-IDF, 토픽모델링
Intellectual Freedom, Censorship, Big Data, TF-IDF, Topic Modeling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겸임교수(hsong01@mju.ac.kr / ISNI 0000 0005 0806 5623)
논문접수일자: 2025년 1월 24일 최초심사일자: 2025년 2월 1일 게재확정일자: 2025년 2월 17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9(1): 547-573, 2025. http://dx.doi.org/10.4275/KSLIS.2025.59.1.547

※ Copyright © 2025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모든 사람은 자신이 알고자 하는 지식과 정보를 추구하고 획득할 권리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 사회는 도서관이라는 사회기관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지식과 정보를 유통시키며 누구나 차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서관의 역할을 뒷받침하는 사상적 배경은 지적자유(Intellectual Freedom)이다. 지적자유란 다소 추상적 개념으로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각 국가들은 언론 출판의 자유 등 법에 명시된 개념을 기반으로 국민들의 지적자유를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는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표현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 한국은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지닐 뿐 아니라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유신체제와 군사정권에 의하여 사상의 자유 및 언론 출판의 자유가 통제되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우리 사회에서 지적자유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지적자유 침해는 정부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주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인터넷 등으로 관련 논의가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복잡하고 다양화된 지적자유 침해 사례들을 이해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신문 기사들을 분석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들은 어떻게 다양화하며 확장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대 사회에서 발생하는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들을 이해하고 도서관계가 지적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론적으로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신문 기사 데이터들을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 분석한다. 국내에서 지적자유와 관련된 연구는 중요성에 비하여 많이 수행되지 않고 있으며(김신영, 2024; 장덕현, 2011), 빅데이터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지적자유 원칙

지적자유는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읽고, 정보를 찾고, 말할 수 있는 권리로(ALA, 2025a), 각국의 헌법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수정헌법 제1조는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Haynes & Chaltain, 2003), 대한민국 헌법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이처럼 각국의 헌법에 명시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며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로 하는 정보에 접근할 자유가 확보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동일한 원칙의 2가지 측면으로 해석된다(IFLA, 1999).

도서관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획득할 수 있는 공적 기관으로, 도서관인

은 도서관 활동의 주체로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정보 접근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책무를 갖는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이에 따라 각국 도서관협회는 도서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적자유 원칙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발전시켜 왔다. 미국도서관협회의 경우, 1930년대부터 지적자유 원칙을 성문화하고 지적자유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관련 활동을 제도화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Knox, 2014). 미국도서관협회는 1939년 '도서관 권리선언'(Library Bill of Rights), '미국도서관협회 윤리강령'(ALA Code of Ethics)을 채택하고 1953년 '독서의 자유' 성명(The Freedom to read Statement)을 채택하는 등 여러 선언과 강령, 성명 등을 채택하고 개정하여 왔다.

미국도서관협회의 '도서관 권리선언'에 따르면 도서관은 모든 관점의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고 검열에 도전하여야 하며 당파적이거나 교리적 반대를 이유로 자료를 제한하거나 폐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는 출신, 연령, 배경 또는 견해에 의해 거부되거나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자료는 창작에 기여한 사람들의 출신, 경력, 견해를 이유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 지적자유 원칙은 도서관 장소인 전시 공간과 회의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ALA, 2025b). 또한, '미국도서관협회 윤리강령'에는 지적자유를 지지하며 도서관 자료의 검열에 저항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독서의 자유' 성명에는 사서는 다수에게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표현과 견해를 포함하여 최대한 다양한 견해와 표현을 제공하여야 하며 사서 개인의 정치적, 도덕적, 미학적 견해를 기준으로 혹은 저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이력을 기준으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디지털 자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ALA, 2025c; 2025d; 2025e).

미국도서관협회의 경우, 지적자유위원회와 지적자유사무국, 독서의 자유 재단, 지적자유원탁회의 등을 두고 지적자유 침해 현안에 대하여 대응하고 있다. 지적자유사무국은 지적자유 상황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하여 분석하며 지적자유에 대하여 사서와 이해관계자들을 교육한다(Knox, 2014).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은 1999년 '도서관과 지적자유에 관한 선언'을 발표했다. 선언에 따르면 도서관은 지적자유를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기여하며 기본적인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시민권을 보호하는 것을 지원한다. 또한, 도서관은 지적 활동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고 용이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모든 형태의 검열에 반대하여야 하며 자료와 서비스의 선정은 정치적, 도덕적, 종교적 견해가 아닌 전문적 기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인종, 종교적 신념, 성별, 연령 등의 이유로 인하여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IFLA, 1999).

한국의 경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에 더하여 유신체제, 군사정권에서 표현의 자유 및 알 권리가 억압되었으며(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지적자유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비교적 최근이다. 1997년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도서관인 윤리선언'을 제정하고 2019년 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하며,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자신의 편견을 배제하고 정보접근을 저해하

는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 또한, 도서관 이용자는 모든 정보와 사상, 그리고 창작물에 제한 없이 자유롭고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9).

2023년 한국도서관협회는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대한 일체의 검열 반대와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2024년에는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사서들이 도서관에서 지적자유 침해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하였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한국도서관협회는 전문위원회로 도서관지적자유위원회를 두고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제정 등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2.2 지적자유 원칙의 적용

2.2.1 지적자유 원칙과 실정법

지적자유 원칙은 헌법을 통하여 뒷받침되고 있으나 특정 내용이나 특정 대상에 대하여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실정법이 존재하여 지적자유 원칙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Gorman(2015)은 지적자유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유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고 국가 혹은 지역 단위 등 모든 관할권에서 법률에 의해 제한받으며 법률은 때때로 상충되고 시대와 여론에 따라 변화한다고 제시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에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동법 제7조 제5항에는 제1항 등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등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하는 경우, 각 항에 정한 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

청소년보호법은 제1조에 따르면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통되는 것을 규제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매체물에는 간행물과 전자출판물이 포함되며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매체물이 청소년에게 유해한지를 심의한다(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9841호). 또한, 인터넷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는 내용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이 명시되어 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60호).

이와 함께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17조에는 출판물 심의기관인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간행물의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고 간행물의 유해성 여부를 심의한다(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9599호). 심의 대상은 소설, 만화, 사진집 및 화보집, 북한 또는 반국가단체에서 출판한 간행물 등이다. 이 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의 의뢰한 간행물, 청소년보호와 관련된 단체, 지도, 단속기관 또는 30인 이상이 서명하여 청소년 위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간행물 등이 해당된다(간행물윤리위원회, 2025).

이처럼 국가보안법, 청소년보호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 관계 법률들은 각각 다른 관점

에서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데, 다소 모호하며 검열의 범주에서 자유롭지 않다. 다만,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간행물윤리위원회 도서 심의의 경우, 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이나 위헌의 소지가 크지 않으며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차원에서 위임된 기능을 수행하므로 참고할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이는 사서들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도서에 대하여 수서를 하는 데 있어 현실적 기준으로 참고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이해된다.

한편, 국내에서는 이와 같은 관계 법률들에 근거하여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독재체제, 군사정권 아래 정치적, 이념적 도서들이 주로 금서로 지정되어 왔으며, 1990년대 이후부터 실질적인 민주화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면서 선정적이거나 음란하다고 판단되는 도서들이 주로 지적자유 침해 사례가 되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도입이 추진되었고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차단소프트웨어가 보급되었다(정현태, 2001). 2023년에는 일부 단체들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성교육, 성평등 등 성을 다루는 도서들에 대한 지적자유 침해 사례가 나타났으며, 점차 선정성, 성소수자, 양성평등 현안에 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도서관협회는 2023년 당시 성명서를 발표하며 지적자유 침해에 반대하였다(김신영, 2024).

미국의 경우에도 실정법으로 인한 지적자유 침해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어린이, 청소년보호와 관련하여 내용을 규제하는 아동인터넷보호법(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이 제정되었으며 법적 판단 끝에 2003년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아동인터넷보호법의 경우, 인터넷의 특정 자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거나 선별하는 기술을 학교와 도서관에 설치하고 사용하여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다. 미국도서관협회는 1997년과 2001년에 이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ALA, 2025f; 2025g).

또한, 미국의 경우, 주로 성소수자, 인종 등을 다루는 도서들이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가운데, 주별 정치적 지형에 따라 금서와 관련된 상반된 내용들이 주법으로 제정되고 있다. 일부 주들은 금서를 옹호하는 내용을, 또 다른 일부 주들은 금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다룬다(이승호, 2024). 2023년 아칸소주는 미성년자에게 유해한 내용을 담은 도서를 도서관에 비치하면 사서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법률인 'Act 372'를 통과시켜 논란이 되었다(Peet, 2025). 일리노이주는 2023년 특정 도서를 금서로 지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도서검열금지법인 'Public Act 103-0100'을 제정하였다(김신영, 2024).

2.2.2 선정과 검열

도서관은 발행되는 모든 자료를 구입하지 않으며 자료를 선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자료를 구입하는 예산과 서가 등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재정적, 물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은 지역사회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들을 구비하여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권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명을 지닌다. 이에 사서들은 전

문성을 기반으로 자료 선정권을 가지고 수서 업무를 수행한다.

선정은 특정 도서를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 행위이지만 검열과는 다르다. 검열은 정부 혹은 일부 개인, 집단이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하는 사상과 정보를 억압하는 것이다. 잠재적 검열자는 도서관 등 공공기관에 압력을 행사하여 부적절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억압하고 제거한다. 이는 자료의 일부를 삭제, 제거, 변경, 편집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ALA, 2025h). 선정자와 검열자를 비교하면, 선정자는 도서를 비치할 가치를 찾는 긍정적 의도를 갖지만 검열자는 도서를 거부할 이유를 찾는 부정적 의도를 지닌다. 또한, 선정자는 작품의 내적 가치를 중시하고 작품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며 자신의 편견이나 외부 압력에 굴복하지 않지만, 검열자는 저자의 정치적 지향 등 외적 기준을 중시하고 작품의 맥락이 아닌 일부 단어나 구절에 집중한다(Asheim, 1953).

다만, 일체의 검열에 반대한다는 지적자유 원칙에도 불구하고 사서들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도서에 대하여 검열에 해당하는 열람제한이나 라벨링을 자발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2019년 파주중앙도서관은 편향적 역사 인식으로 논란이 된 도서 '반일 종족주의' 표지에 안내문구를 붙여 해당 도서 외에 다른 도서들을 안내하였다(송현경, 2021). 2021년 성북구립도서관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작가 한예찬씨의 도서들을 열람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사서들은 여러 이유로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57.5%가 동의하였다(배경재, 2022).

2.3 선행연구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으는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지적자유 원칙과 관련하여 사례와 동향을 분석한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국내 연구를 보면, 우선,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정부 수립 이후부터 1980년~1990년대까지, 혹은 2000년대까지 검열 및 금서를 중심으로 관련 사례 및 동향에 대하여 분석한 연구가 진행되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한국의 경우, 1980년대까지는 정부에 의해 정치적, 이념적 서적이 주로 금서가 되었으며 1990년대부터는 선정적 도서들이 주로 금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치적 도서에 대한 정부의 검열은 지속되었는데, 2008년에 국방부가 불온서적 목록을 발표하여 논란이 되었다.

다음으로 2000년대 이후 연구로, 사서들을 대상으로 지적자유 및 검열 사례와 관련하여 행태 및 인식을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김신영, 2024; 배경재, 2022; 정현태, 2000). 우선, 2023년 10월 기준 최근 3년간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한 주된 현안은 선정성 등과 관련한 검열성 민원 제기로 나타났다(김신영, 2024). 또한, 사서들은 작가가 성범죄를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아 열람제한을 한 현안의 경우, 다른 현안들에 비하여 검열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배경재, 2022). 인터넷에서의 지적자유와 관련한 연구도 수행되었는데, 정현태(2001)의 경우, 공공도서관의 차단소프트웨어 설치 등 현황과 사서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국외 연구를 사례와 동향 연구 중

심으로 보면, 미국의 경우, 1930년대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지적자유 사례 및 동향에 대해 분석한 연구들을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지적자유 원칙과 관련하여 미국도서관협회는 1939년부터 1969년까지 지속적으로 도서관 권리선언을 개정하며 발전시켰다(Robbins, 1996).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미국 내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사례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도서관에서의 정보 접근권에 대하여 도서뿐 아니라 인터넷, 회의실 및 전시 공간 등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Cohen & Minow, 2006). 인터넷에서의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Dresang(2006)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많은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적자유가 확대된 반면, 아동인터넷보호법의 합헌 판결은 제약을 가져왔다.

지금까지 국내외 사례 및 동향 연구 중심으로 지적자유를 다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보면, 국내에서 2000년대 이후의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2000년부터 2024년까지의 신문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를 주제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신문 기사는 신문사가 매일 가장 중요한 현안을 게이트키핑을 거쳐 기사화하는 것으로(Shoemaker & Vos, 2009), 사실 확인과 검증이 이루어져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한다. 이에 신문 기사는 장기간에 걸친 사회 전반의 여론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용이하여 다양한 사례 및 동향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활용되었다(김혜경, 2011; 박나래, 김한근, 2024; Hossain et al., 2021; Pollak et al., 2011).

본 연구가 방법론으로 적용하고자 하는 텍스트마이닝은 비정형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추출하는 기법으로, 패턴과 트렌드를 식별하여 텍스트 내 의미를 도출할 수 있다(이남호, 2024). 특히, 대량의 텍스트를 분석하는 경우, 정성적 분석방법을 적용하면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여지가 있으며 비용과 시간 소요가 큰데, 텍스트마이닝 기법은 이를 보완할 수 있다(홍순구, 임지원, 2021).

3. 연구방법

3.1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

본 연구는 200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언론사 기사 데이터베이스인 빅카인즈(www.bigkinds.or.kr)가 제공하는 전국일간지 12종과 지역일간지 45종 등 총 57종을 대상으로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지적자유 기사들을 수집하였다. 전국일간지의 수도권 중심 기사와 함께 지역일간지의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사들을 포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신문 데이터 수집에 있어 검색어는 '도서관 지적자유', '도서관 검열', '도서관 금서', '도서관 사회적 논란', '도서관 열람제한', '도서관 자료제한', '도서관 이념서적', '도서관 불온서적', '도서관 청소년보호', '도서관 인터넷검열', '도서관 온라인검열'을 선정하였다. 검색어의 경우, 국내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분석한

선행연구(김신영, 2024; 배경재, 2022; 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정현태, 2000; 2001)를 토대로 주요 키워드들을 도출하여 선정하였다. 정현태(2000)는 전반적인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를 분석하며 '이념도서 제거와 자기검열', '금서와 추천도서', '사회적 기준', '청소년 이용제한', '이념자료 열람제한', '인터넷 검색제한' 등의 키워드들을 사용하였다. 이명희(2004)와 장덕현(2011)은 정치적 서적에 대한 검열에서 음란물과 관련한 검열까지 지적자유 침해 및 검열 대상의 변화에 대해 파악하며 '검열 사례', '금서 사례', '사상 통제의 역사', '이념서적', '국방부 불온서적', '음란물', '청소년보호' 등의 키워드들을 활용하였다. 배경재(2022)와 김신영(2024)은 2010년대 후반부터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례 및 사서들의 인식들을 분석하며 '나다움어린이책 검열 논란', '장서 열람제한', '자료 열람제한', '수서제한' 등의 키워드들을 사용하였다. 인터넷과 관련한 지적자유에 대해 분석한 정현태(2001)는 '인터넷음란물', '청소년보호', '인터넷 내용등급제', '차단소프트웨어' 등의 키워드들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키워드들을 기반으로 우선, '도서관 지적자유', '도서관 검열', '도서관 금서'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이는 도서관과 연관된 지적자유 기사들을 수집할 수 있는 검색어로, 김신영(2024), 배경재(2022), 이명희(2004), 장덕현(2011), 정현태(2000)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이념서적', '도서관 불온서적'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치적 서적과 지적자유 관련 기사들을 수집하고자 했으며, 이명희(2004), 장덕현(2011), 정현태(2000)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도서관 청소년보호'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선정적 도서 및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지적자유 기사들을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이명희(2004)와 정현태(2001)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도서관 사회적 논란', '도서관 열람제한', '도서관 자료제한'의 검색어를 선정하였다. 2010년대 이후 지적자유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을 다룬 기사를 수집하고자 하였으며, 김신영(2024)과 배경재(2022)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도서관 인터넷검열', '도서관 온라인검열' 검색어의 경우, 인터넷과 관련한 지적자유 기사들을 수집하고자 정현태(2001)를 기반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신문 데이터 2297건을 수집하였다. 이 중 중복 기사와 주제와 무관한 기사, 단순 행사안내 기사, 동정 및 인사 기사 등을 삭제하여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적자유 사례를 다룬 신문 데이터 396건을 확보하였다. 전국일간지의 기사는 288건, 지역일간지의 기사는 108건이다.

본 연구는 신문 데이터에 대하여 기사 제목과 기사 본문 첫 200자를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신문 기사의 제목은 기사 본문의 주제와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작성된다. 또한, 신문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표현 형식은 역피라미드형으로, 기사의 가장 앞부분에서 기사 내용에 대한 요약이 이루어진다(오택섭 외, 2020).

데이터 전처리에는 파이썬으로 한국어 정보처리를 할 수 있는 KoNLPy(Korean NLP in Python)의 okt 모듈을 활용하였다(박은정, 조성준, 2014). 이를 통하여 주요 명사를 추출하고 조사, 접속사, 특수기호, 연구 목적과 관련이 없는 단어 등을 제거하였다. 이후 유사어 처리

등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쳤다. 데이터 전처리 결과, 총 1만4345개의 단어 중 중복을 제외한 고유 단어수는 2900개로 집계되었다.

3.2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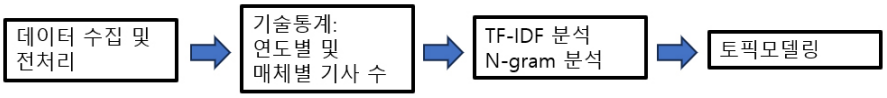
본 연구는 수집한 신문 데이터를 대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에 대한 상위 키워드와 주제를 도출하여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텍스트마이닝 기법들을 적용하였다. 우선, 신문 데이터에 대한 양적 분석을 위하여 연도별, 매체별 기사 건수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 중 TF-IDF(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 분석, N-gram 분석, 토픽모델링(Topic modelling)을 수행하였다. TF-IDF 분석의 경우, 문서 내에서 해당 키워드들이 갖고 있는 중요도를 고려하는 키워드 추출 기법으로, 단순 빈도분석에서 나타나는 일반 주제어의 비중을 낮추고 주제 식별력이 높은 단어들을 선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 가중치 분석이다. 이를 통하여 특정 단어가 문서 내에서 가지는 중요도를 측정할 수 있다(송민, 2017). N-gram 분석은 문서 내 연결된 상위 단어쌍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N-gram 분석은 텍스트 내 N개의 연속된 연결 단어들을 파악하는 분석 기법으로, 문서 내 단어들 간 연관성을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된다(문예령 외, 2024).

다음으로 본 연구는 문서 내 구조를 파악하여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의 주요 토픽을 추출하기 위하여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였다. 토픽모델링은 문서 모음에서 토픽을 발견하는 것으로, 유의미한 정보가 포함된 방대한 문서 아카이브에서 텍스트의 단어를 분석함으로써 숨겨져 있는 텍스트의 주제 구조를 발견한다(Blei, 2012). 본 연구에서는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였다. 토픽모델링 분석 초기에는 pLSI(Probabilistic Latent Sementic Index) 기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Blei et al. (2003)이 LDA 알고리즘을 발표한 이후에는 LDA 알고리즘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남춘호, 2016). pLSI는 텍스트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데 유용하지만, 각 문서에 대한 확률적 토픽 분포를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불완전하며, LDA는 이 한계를 극복하는 기법으로 제시되었다(Blei et al., 2003). LDA는 문서 내 존재하는 다양한 토픽을 파악하고, 각 토픽이 문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는 각 문서의 토픽 분포와 각 토픽에 포함된 단어들의 비중을 추정함으로써 문서 전체에 내재한 토픽들을 식별하는 데 중점을 두며, 복잡한 데이터 구조를 반영하는 데 적합한 모델링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남호, 2024).

분석 절차를 보면, 먼저, 상위 키워드 및 상위 연결 단어들을 파악하고자 TF-IDF 분석, N-gram 분석을 수행하였다. N-gram 분석의 경우, 2-gram, 3-gram 분석을 수행하여 2개 및 3개의 연속된 연결 단어들을 파악하였다. 분석은 각각 상위 30개까지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LDA 기반 토픽모델링 분석을 시도하였다. α값과 β값을 기본값으로 설정하였으며 이터레이션(iteration)은 50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에 파이썬의 gensim과 sklearn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데이터 분석 방법 및 절차

4. 분석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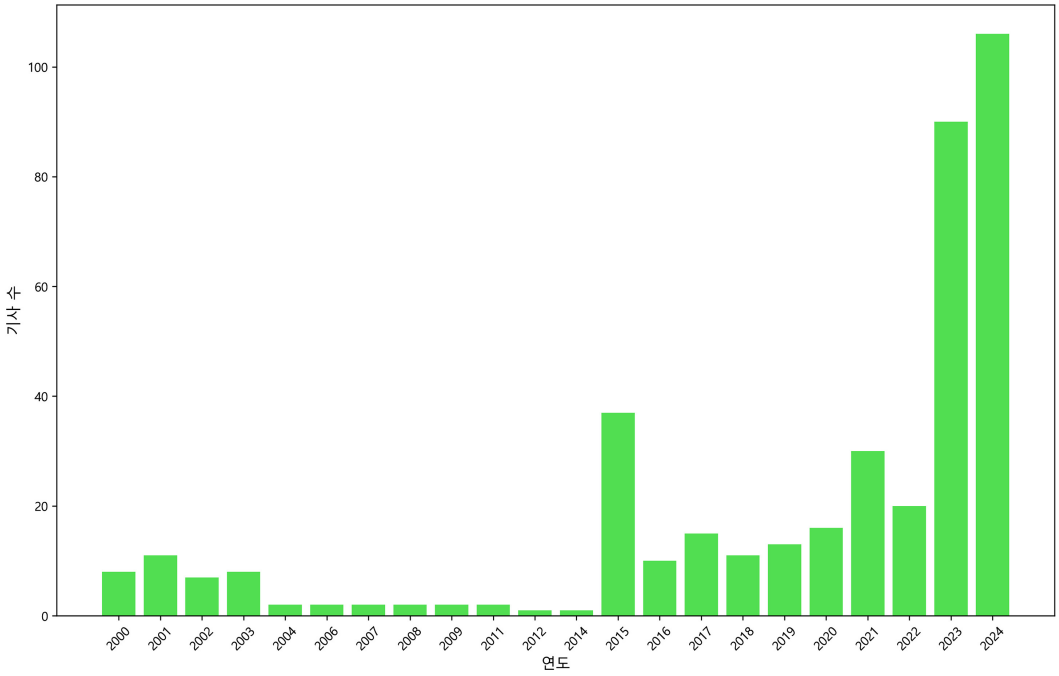
4.1 기사량 분석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에 대한 신문 기사 건수를 연도별, 매체별로 분석하였다. 연도별 분석을 하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해마다 8~11건의 도서관 지적자유 사례들이 기사화되었다. 당시 인터넷이 대중화하면서 사회적으로 인터넷 검열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으며(정현태, 2001), 도서관을 대상으로도 관련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이어 기사 건수는 해마다 0~2건 등으로 사회적 관심이 낮았음을 보여주었으며, 2015년 37건으로 증가하였다. 당시 보수 성향 단체가 학교와 도서관의 일부 도서에 대해 이념 논란을 제기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가 조직되고 '금서읽기주간'이 시작되었다(양선아, 2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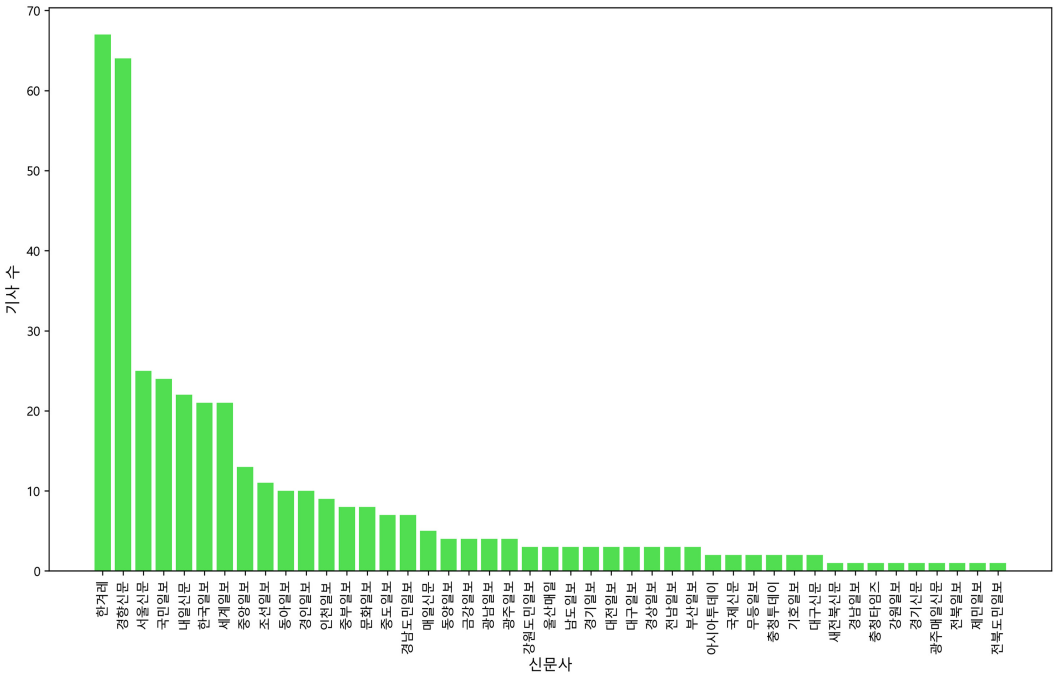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기사 건수는 10~16건으로 나타났는데, 해마다 열린 '금서읽기주간' 기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사례들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2016년에는 친일인명사전 학교 비치와 관련하여 일부 학교 및 보수 성향 학부모들이 문제제기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김용래, 2016). 이후, 비교적 안정적이던 기사 건수는 2021년에 30건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동화작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이후, 도서관들은 해당 작가의 도서를 열람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배경재, 2022; 이다예, 2021), 관련 기사들이 2021년까지 게재된 것으로 분석된다.

2023년과 2024년에 기사 건수는 급증하여 각각 90건, 106건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나다움어린이책'과 관련하여 성교육, 성평등 도서에 대한 일부 단체들의 열람제한 요구가 있었다(김신영, 2024). 2024년에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유해도서로 지정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이우연, 2024). 연도별 기사 건수는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매체별 기사 건수를 분석하였다. 기사가 가장 많이 게재된 신문은 한겨레로 67건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향신문이 64건으로 2위를 기록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신문 25건, 국민일보 2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면, 한겨레 등 진보 성향의 신문들이 지적자유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일보는 기독교 계열로(국민일보, 2025),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도서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최경식, 2023). 매체별 기사 건수는 〈그림 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연도별 기사 수



〈그림 3〉 매체별 기사 수

4.2 TF-IDF 분석

TF-IDF 분석 결과를 보면, '도서관'(25.56)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으며, 이어 '도서'(24.15), '금서'(14.92), '경기도'(14.28) 순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다음으로 '학교'(12.84), '어린이'(12.76), '교육청'(11.51), '성교육'(10.72), '단체'(10.51) 순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보면, 학교 및 어린이, 성교육 도서가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핵심 논의 대상이 되며 교육청과 일부 단체들이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적으로는 경기도가 주되게 나타났다.

상위 11~20위 TF-IDF 분석 결과에서는 '청소년'(10.16)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다. 이어 '한강'(9.94), '채식주의자'(9.04), '작가'(8.91) 등이 이 구간에 위치하였다. 이는 청소년 및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와 관련한 논의가 핵심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위 21~29위 TF-IDF 분석 결과를 보면, '검열'(7.67)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으며, '서울시'(7.63), '의원'(7.60), '충남도'(7.21), '인터넷'(7.12) 등이 나타난다. 이는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의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하게 나타나며 지역적으로는 서울시와 충청남도에서 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TF-IDF 분석은 〈표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3 N-gram 분석

2-gram 분석 결과, '유해 도서'(86회)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다. 뒤를 이어 '경기도 교육청'(75회), '학교 도서관'(75회), '성교육 도서'(59회)가 상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 '청소년 유해'(50회) '시민 연대'(45회) '어린이 청소년'(43회) 등도 나타났다. 이는 학교도서관 및 성교육 도서와 관련한 논의, 어린이 및 청소년과 관련한 논의가 도서관 지적자유 논의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외 시민들의 활동 및 연대도 관련 논의에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상위 11~19위 분석 결과에서는 '도서 폐기'(38회)가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이어 '금서 지정'(36회), '한강 작가'(34회), '학부모

〈표 1〉 TF-IDF 분석

순위	단어	중요도	순위	단어	중요도	순위	단어	중요도
1	도서관	25.56	11	청소년	10.16	21	검열	7.67
2	도서	24.15	12	논란	10.08	21	비치	7.67
3	금서	14.92	13	한강	9.94	23	서울시	7.63
4	경기도	14.28	14	폐기	9.73	24	의원	7.60
5	학교	12.84	15	채식주의자	9.04	25	제한	7.58
6	어린이	12.76	16	작가	8.91	26	시민	7.48
7	유해	12.42	17	독서	8.88	27	충남도	7.21
8	교육청	11.51	18	교육	7.93	28	인터넷	7.12
9	성교육	10.72	19	열람	7.85	29	노벨문학상	7.06
10	단체	10.51	20	평등	7.81	29	문화	7.06

단체'(32회) 순으로 상위권에 위치하였다. 이 외 '문화 시민'(32회), '금서 주간'(31회), '인명 사전'(26회), '친일 인명'(26회) 등이 나타났다. 도서관 지적자유 논의에 있어 금서 및 도서 폐기와 관련된 지적자유 침해 논의와 함께 학부모 단체와 문화 시민이 주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 친일인명사전이 거론되고 있으며 '금서읽기주간'도 주요하게 언급됨을 확인할 수 있다.

상위 21~29위 분석 결과에서는 '평등 도서'(24회), '어린이 성추행'(24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뒤를 이어 '소설 채식주의자'(23회), '국회 교육'(22회), '인터넷 내용'(21회), '내용 등급제'(20회) 등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성평등 도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가 주로 언급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적자유가 주로 논의되며 어린이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인터넷과 관련한 내용등급제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2-gram 분석 결과는 〈표 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3-gram 분석 결과를 보면, '독서 문화 시민'(32회)이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어 '문화 시민 연대'(31회), '청소년 유해 도서'(26회), '친일 인명 사전'(26회), '인터넷 내용 등급제'(20회)가 나타났다. 또한 '국회 교육 위원회'(17회)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16회) '성교육 평등 도서'(15회) 등이 뒤를 이었다. 독서 문화와 관련한 시민들의 활동 및 연대가 도서관 지적자유와 관련하여 중요하며 청소년 도서, 친일인명사전, 한강 작가 작품, 성교육 도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관련 논의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20위에서는 '유해 도서 심의'(13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13회) 등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이어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12회), '작가 소설 채식주의자'(12회),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11회), '어린이 성추행 혐의'(11회) 등이 나타났다.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어린이, 청소년과 소설 '채식주의자'가 주로 언급되었다. 또한, 경기도 교육청과 국정감사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경기도교육청의 지적자유 침해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의 주된 질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어린이 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논의도 주요하게 나타났다.

상위 25~28위까지는 '인명 사전 구입'(10회),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10회), '학교 도서관 성교육'(10회)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다. '성추행 혐의 실형'(9회), '전국 학부모 단체'(9회) 등이 뒤를 이었다. 소설 '채식주의자'의 청소년 유해도서 논란 및 학교도서관의 성교육 도서, 친일인명사전 비치와 관련된 논의들이 주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전국 학부모 단체가 높은 빈도로 언급되었으며 성추행 실형 혐의 등 성범죄와 관련한 논의도 주요하게 나타났다. 3-gram 분석 결과는 〈표 3〉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4.4 토픽모델링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기반 토픽모델링을 적용하여 데이터를 분류하기 위한 적정 토픽수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토픽 3개

〈표 2〉 2-gram 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회)	순위	단어	빈도(회)
1	유해 도서	86	16	금서 주간	31
2	경기도 교육청	75	17	도서 검열	30
2	학교 도서관	75	18	노벨문학상 한강	29
4	성교육 도서	59	19	인명 사전	26
5	열람 제한	54	19	친일 인명	26
6	도서관 비치	53	21	어린이 성추행	24
7	청소년 유해	50	21	평등 도서	24
8	시민 연대	45	23	도서 선정	23
9	어린이 청소년	43	23	소설 채식주의자	23
10	독서 문화	40	23	지적자유 침해	23
11	도서 폐기	38	26	국회 교육	22
12	금서 지정	36	27	중앙 도서관	21
13	한강 작가	34	27	인터넷 내용	21
14	학부모 단체	32	29	내용 등급제	20
14	문화 시민	32	29	성교육 평등	20

〈표 3〉 3-gram 분석 결과

순위	단어	빈도(회)	순위	단어	빈도(회)
1	독서 문화 시민	32	14	연대 독서 문화	12
2	문화 시민 연대	31	14	작가 소설 채식주의자	12
3	청소년 유해 도서	26	14	청소년 유해 매체	12
3	친일 인명 사전	26	14	출판 배포 금지	12
5	인터넷 내용 등급제	20	20	경기도 교육청 국정감사	11
6	국회 교육 위원회	17	20	성교육 도서 폐기	11
7	노벨문학상 한강 작가	16	20	어린이 성추행 혐의	11
8	성교육 평등 도서	15	20	채식주의자 유해 도서	11
9	도서 열람 제한	14	20	한강 작가 소설	11
10	국립 중앙 도서관	13	25	인명 사전 구입	10
10	우수 문학 도서	13	25	채식주의자 청소년 유해	10
10	유해 도서 심의	13	25	학교 도서관 성교육	10
10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13	28	성추행 혐의 실형	9
14	도서관 어린이 청소년	12	28	전국 학부모 단체	9
14	도서관 열람 제한	12	28	한강 소설 채식주의자	9

부터 9개까지 분석을 진행하여 적정 토픽수로 6개를 추출하였다. coherence 값은 중간 정도이며, perplexity 값은 다소 높게 나타났으나 토픽의 적절한 해석 가능성을 함께 고려하였다.

토픽 1은 '경기도'(0.047), '성교육'(0.047), '교육청'(0.033), '평등'(0.031), '폐기'(0.031), '충

남도'(0.029)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픽에서는 지역 교육청을 중심으로 한 성교육, 성평등 도서의 검열과 관련된 지적자유 사례가 나타나며 경기도와 충청남도가 부각되었다. 또한, '의원'(0.025), '단체'(0.024)가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일부 단체를 중심으로 한 지적자유 침해가 나타나며 일부 의원들도 이와 관련하여 지적자유를 침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토픽명은 '성교육 도서'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92개(23.23%)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교육청이 2024년 2월까지 '유해한 성교육 도서 선정 유의 안내' 등의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으며 이와 관련하여 학교들이 2500여권의 관련 도서들을 폐기하였다. 이에 시민단체들이 반대 기자회견을 했으며 경기도의회에 교육감이 출석한 가운데 관련 현안이 논의되었다(오상도, 2024). 또한, 충청남도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보수 성향 단체들을 중심으로 성교육 등 성을 다룬 일부 도서들에 대하여 공공도서관에 공문을 보내 폐기를 요구하였다. 이어 한 도의원이 도의회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한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충남지사는 이에 대한 답변으로 열람제한을 언급하였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들은 지방의원들과 도지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송인걸, 2023).

토픽 2는 '인터넷'(0.058), '차단'(0.029), '등급제'(0.023), '내용'(0.023), '음란'(0.018)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음란물과 관련하여 인터넷 차단 및 내용등급제와 관련된 내용이 부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적자유'(0.020), '정보'(0.016)를 보면, 정보 접근권 및 지적자유 수호와 관련된 언급이 주로 나타난 것을 보여준다. 이에 토픽명은 '인터넷'으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64개(16.16%)로 나타났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 대중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내용등급제에 관한 논의가 시작됐다. 당시 정보통신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에 대한 등급제를 추진하면서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이어졌으며(진보넷, 2025), 관련 기사들이 게재되었다. 관련 논의는 미국에서도 진행되었는데, 인터넷의 특정 내용을 차단하는 아동인터넷보호법은 대법원에서 합헌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국내에서도 관심을 가진 현안이었다(태원준, 2003). 이와 같은 흐름은 도서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국내의 경우, 도서관에 차단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으며 미국의 경우, 도서관들이 아동인터넷보호법을 준수하여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다(정현태, 2001; ALA, 2025g).

토픽 3은 '한예찬'(0.045), '혐의'(0.04), '제한'(0.038), '성추행'(0.036), '선고'(0.025), '동화작가'(0.022)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보면 동화작가 한예찬, 성추행 혐의 및 선고, 제한 등의 단어가 주로 부각되었다. 동화작가로 활동하던 한예찬씨가 아동성추행 혐의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그의 도서가 열람제한되는 사례가 주된 내용으로 해석된다. '성북구'(0.02)는 주로 언급된 지역으로 성북구 도서관과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토픽명은 '성범죄 작가 도서'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40개(10.10%)로 나타났다.

관련 기사들을 보면, 2020년 동화작가 한예찬씨는 1심에서 아동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각 도서관들은 그의 책을 열람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 성북구립도

서관은 개별사건에 대한 특수한 조치로 한예찬 씨의 저서를 열람제한한다는 공지를 누리집에 게시하였다(이다예, 2021; 정인화, 2021).

토픽 4는 '유해'(0.054), '청소년'(0.05), '한강'(0.041), '채식주의자'(0.028), '노벨문학상'(0.027), '작가'(0.025) 등의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토픽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 '채식주의자'가 청소년 유해도서로 분류되며 지적자유가 침해된 사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더하여 '학부모'(0.026), '단체'(0.022), '경기도'(0.021)를 보면, 학부모 단체가 지적자유 침해의 중심이 되며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나타난 현안임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토픽명은 '소설 채식주의자'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88개(22.22%)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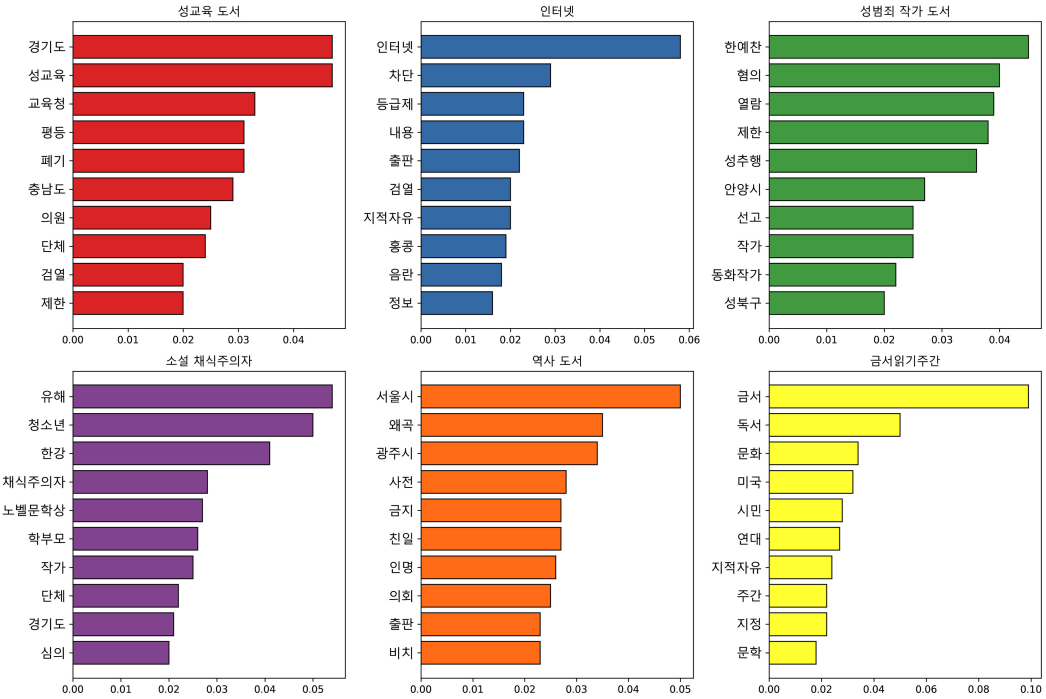
관련 기사들을 보면, 경기도의 몇몇 학교도서관에서 '채식주의자'를 폐기 및 열람제한을 한 것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알려지며 검열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졌고 경기도교육감이 해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를 중심으로 '채식주의자'는 유해도서라는 주장은 지속되었다(오상도, 2024; 이채윤, 2024).

토픽 5의 경우, '서울시'(0.050), '왜곡'(0.035), '광주시'(0.034), '사전'(0.028), '친일'(0.027), '인명'(0.026)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사전, 친일, 인명이 부각되었으며 지역으로는 서울과 광주가 주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왜곡과 관련한 내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의회'(0.025), '비치'(0.023)를 보면, 자료의 비치와 관련된 내용과 함께 관련 내용이 의회에서 언급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픽명은 '역사 도서'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42개(10.6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6년 서울시교육청이 친일인명사전의 학교도서관 비치를 추진하던 중 일부 학교 및 보수 성향 학부모들이 이를 거부하고 문제제기를 하여 논란이 되었다. 이에 서울시의회가 친일인명사전 비치를 거부한 학교장에 대해 출석을 요구한 바 있다(김용래, 2016; 김향미, 2016).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여 서술한 도서에 대해 출판 금지 조치가 취해졌으며, 도서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도서들이 비치돼 논란이 되었다(곽혜진, 2021; 세계일보, 2019).

토픽 6의 경우, '금서'(0.099), '독서'(0.05), '문화'(0.034), '시민'(0.028), '연대'(0.027), '지적자유'(0.024) 등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금서를 읽는 등 독서 문화에 관심이 모아지며 시민들의 연대 및 지적자유에 대한 관심이 중시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주간'(0.022), '지정'(0.022)이 주요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특정 주간이 지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토픽명은 '금서읽기주간'으로 부여하였다. 관련 기사 수는 70개(17.68%)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2015년 일부 보수 성향 단체들이 어린이, 청소년 대상 일부 도서에 대하여 이념 논란을 제기한 것을 계기로 바람직한독서문화를위한시민연대가 조직되었으며 2015년부터 해마다 9월 1일부터 7일까지 '금서읽기주간'을 열고 역사 속 금서를 읽고 플래시몹을 펼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양선아, 2023). 토픽 모델링 핵심토픽별 주요 키워드는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 토픽모델링 핵심토픽별 주요 키워드

4.5 시사점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신문 빅데이터를 통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된 도서관 지적자유 관련 주요 사례 및 동향을 파악하고 각 사례들이 어떻게 다양화하며 확장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서관계가 각 사례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지적자유 침해 현안은 청소년보호, 역사 도서, 저자의 성범죄 관련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주된 지적자유 침해 현안은 선정성을 이유로 한 청소년보호 관련으로 TF-IDF 분석에서 '어린이', '청소년' 등의 관련 키워드가 나타났으며, 토픽모델링에서 '성교육 도서', '소설 채식주의자' 등 2개의 토픽이 이에 해당하였다. 해당되는 기사 수는 총 180개로 45.45%에 이르렀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 주도의 검열이 사라지기 시작한 1990년대부터 표현의 자유가 강화하면서 선정적 도서에 대한 논란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특히, 점차 선정성 등에 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많아진다는 점에서(김신영, 2024), 이는 앞으로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적자유 현안 중 하나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친일인명사전 등 역사서를 둘러싼 지적자유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오류가 포함된 도서와 관련한 논란이 나타나고 있다. 2-gram 분석에서 '인명 사전', '친일

인명' 등의 분석이 나타났으며 토픽 중 '역사 도서'가 이에 해당한다. 다만, 비중은 적어 기사 수 총 42개로 10.61%를 차지하였다. 1980년대까지 우리 사회에서는 정치적 도서가 주된 검열의 대상이 되었으며(이명희, 2004; 장덕현, 2011), 역사 도서에 대한 지적자유 침해는 이와 같은 정치적, 이념적 지적자유 침해의 맥락에 있다.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은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한국행정연구원, 2024), 관련한 지적자유 침해는 적은 비중이나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저자가 성범죄를 저지른 현안과 관련하여 지적자유 침해 논란이 나타났다. 성범죄 작가 도서의 경우, 저자의 성범죄가 실형을 선고받은 이후, 도서관에서 해당 저자의 저서에 대한 열람제한이 이루어졌다(이다예, 2021; 정인화, 2021). 이와 관련한 분석 결과, 2-gram 분석에서 '어린이 성추행'이 나타났으며, 비중이 10.10%로 적긴 하나 토픽모델링에서 하나의 토픽으로 분류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자료는 창작자의 출신, 경력, 견해를 이유로 폐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ALA, 2025b), 이는 검열에 해당한다. 그러나 사서들은 저자의 성범죄 현안과 관련한 열람제한의 경우, 검열이라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현장에서 여러 이유로 수서제한 및 열람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배경재, 2022). 이에 따라 전문성에 기반을 한 선정과 제거에 초점을 맞추는 검열의 차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청소년보호, 역사 도서 등 다양한 지적자유 침해 현안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개별 도서관들은 수서 업무 및 자료선정, 민원 대응과 관련한 명확한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개별 도서관들이 지적자유 침해에 대처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4년 '한국도서관협회 지적자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개별 도서관들은 이를 참고하여 도서관서비스 전반에 지적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자료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민원이 제기된 자료에 대한 재심의 절차를 명시할 수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또한, 사서들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서관 현장에서 열람제한의 필요성이 인식되는 도서 및 역사 왜곡 등 잘못된 사실이 포함된 도서의 처리와 관련하여서도 해당 정책 및 관련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도서관은 물리적, 재정적 이유로 모든 도서를 비치할 수 없어 사서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도서를 선정한다. 사서들은 한정된 자원을 기반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지역사회 및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도서들을 수서한다. 이와 관련하여 배경재(2022)는 배제가 아닌 선정의 과정으로서 수서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문화된 매뉴얼을 갖출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지적자유에 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gram 분석에서 '문화 시민 연대'가 나타났으며 토픽모델링에서 '금서읽기주간'은 하나의 토픽으로 나타났다. 기사 건수는 70개로 전체 기사 중 비중은 17.68%에 이르렀다. 이는 그만큼 시민들의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권에 대한 인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속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현안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도서관계가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우호적 환경에 놓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금서읽기주간' 캠페인의 효과성이 입증된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도서관계는 시민들의 높은 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도서관 지적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한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전문직단체인 한국도서관협회를 중심으로 개별 도서관들과 함께 지적자유를 주제로 하는 세대별, 주제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우선, 선정성과 관련한 검열성 민원제기가 지속될 우려가 있으며 성교육 도서가 주된 문제제기의 대상이 되는 만큼 성교육 및 성교육 도서를 주제로 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성교육 전문가 및 관련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면 보다 전문성을 높일 수 있으며 관련 지적자유 현안이 발생했을 때, 보다 긴밀하게 협력할 여지가 높아진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시민들은 성교육 및 성교육 도서의 역할과 의미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청소년보호와 관련한 지적자유 현안을 포함하여 지적자유를 주제로 청소년들을 주체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및 활동이 전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청소년보호를 이유로 도서에 대한 검열성 민원 제기가 나타나는 경우, 해당 도서를 읽는 주체는 청소년임에도 국내에서 관련 현안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낸 사례는 찾기 쉽지 않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들이 스스로 관련 주장을 펼치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Dresang, 2006). 청소년들은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지적자유 및 검열, 표현의 자유 등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개별 도서관들의 지적자유 수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개별 도서관들은 현장에서 지역사회 다양한 주체들과 교류하며 이용자들을 직접 대면하고 서비스한다. 따라서 평소 지역사회 및 이용자들과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지적자유를 주제로 소통하고 문제의식을 공유할 수 있다. 개별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이 '금서읽기주간'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수 있으며, 사서와 이용자들은 함께 역사 속 금서들을 읽으면서 지적자유 및 정보 접근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지역사회 및 이용자들의 지적자유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지적자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데 필요하며 중요하다.

셋째, 새로운 기술 도입과 관련한 지적자유 침해 현안도 나타났다. 2-gram 분석에서 '인터넷 내용', '내용 등급제'가 나타났으며 토픽 중 하나로 '인터넷'이 추출되었다. 기사 수는 64개로 16.16%에 이른다. 인터넷에 대한 지적자유 침해는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사회적 관심을 모은 현안으로, 정보의 확장과 함께 정보에 대한 제약이 논의되며 대중의 반발을 낳았다. 이는 향후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메타버스 등 정보 접근과 체험을 확장하는 새로운 기술의 대중화에 있어서도 지적자유 침해가 등장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도서관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선보이고 이에 대한 리터러시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새로운 기술의 대중화와 이에 따른 지적자유 침해

가능성은 향후 도서관계가 대응이 필요한 현안 중 하나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는 도서 검열뿐 아니라 매체별 자료와 서비스 등에 이르기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도서관계는 도서관 운영 전반에 지적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고민을 시작하여야 할 것으로 제안이 된 바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5. 결 론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사회적 관심을 모은 지적자유 관련 사례에 대하여 주요 키워드와 토픽을 파악하여 지적자유 관련 사례가 다양화하고 확장되고 있음을 파악하고 도서관계가 지적자유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지적자유를 주제로 한 논문 중 2000년대 이후 국내 지적자유 사례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며,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 200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지적자유 침해 현안은 청소년보호, 역사 도서, 저자의 성범죄 관련, 인터넷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또한, '금서읽기주간' 등 지적자유 침해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및 시민들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기반으로 본 연구는 개별 도서관들이 지적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하여 지적자유 침해에 대응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한국도서관협회 및 개별 도서관들은 시민들의 지적자유에 대한 높은 관심을 기반으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지적자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또한, 도서관계는 향후 새로운 기술의 도입과 관련한 지적자유 수호에 대해 고민을 시작할 필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다만, 본 연구는 도서관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적자유 관련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이에 사회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2008년 국방부 불온서적 목록 발표 등은 주요 키워드 및 토픽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 지적자유 사례에 대하여 다룰 수 있다.

참 고 문 헌

간행물윤리위원회 (2025). 심의대상 및 심의기준.
출처: https://e.kpipa.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곽혜진 (2021. 2. 22.). 법원, '5·18 북한군 개입' 주장한 지만원 신간 출판 금지. 서울신문.
출처: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2500239
국가보안법. 법률 제13722호.

국민일보 (2025). CEO인사말. 출처: https://company.kmib.co.kr/company/

김신영 (2024). 도서관 지적자유 침해 양상과 대처방안.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5(2), 189-217.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89

김용래 (2016. 2. 25.). 서울서 친일인명사전 구입 보류 학교 잇따라. 연합뉴스.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160225151100004?input=1195m

김향미 (2016. 2. 29.). 서울시의회 "친일인명사전 거부 교장에 출석 요구할 것". 경향신문. 출처: https://www.khan.co.kr/article/201602292116245

김혜경 (2011). 도서관에 대한 사회인식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헌정보학과.

남춘호 (2016). 일기자료 연구에서 토픽모델링 기법의 활용가능성 검토. 비교문화연구, 22(1), 89-135.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문예령, 손가은, 남건욱, 이한진 (2024). N-gram 프레임워크 기반 F&B 분야 감성사전 구축 연구.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9(10), 11-19. https://doi.org/10.9708/jksci.2024.29.10.011

박나래, 김한근 (2024) 국내 언론의 다문화가정 논의 키워드 분석 및 동향 분석 연구: 2006년~2023년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구 문화교류연구), 13(3), 49-76. https://doi.org/10.30974/kaice.2024.13.3.3

박은정, 조성준 (2014). KoNLPy: 쉽고 간결한 한국어 정보처리 파이썬 패키지. 제26회 한글 및 한국어 정보처리 학술대회 논문집, 133-136.

배경재 (2022). 지적자유와 도서관 장서검열 문제의 현장 인식과 과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세계일보 (2019. 5. 14.). 5·18 왜곡 서적, 광주 대학·공공도서관에 버젓이 비치.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514505033

송민 (2017). 텍스트 마이닝. 서울: 청람.

송인걸 (2023. 7. 26.). '도서관 성평등 책 빼' 요구한 단체…충남지사 "일부 열람 제한".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840.html

송현경 (2021. 8. 26.). 사회적 논란 있는 책, 어떻게 서비스해야 할까. 내일신문. 출처: https://www.naeil.com/news/read/397014

양선아 (2023. 8. 31.). 둘리, 몽실언니도 한땐 금서였다…올핸 어떤 금서 읽어볼까.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6532.html

오상도 (2024. 6. 12.). "선정적" vs "과도한 조치"…경기도 학교, 성 평등 도서 2000여권 폐기. 세계일보. 출처: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2517118

오택섭, 강현두, 최정호, 안재현 (2020). 뉴미디어와 정보사회. (개정 3판). 파주: 나남.

이남호 (2024). 생성형 AI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연구의 동향 분석: 토픽 모델링과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학, 21(4), 159-182. https://doi.org/10.15652/ink.2024.21.4.159

이다예 (2021. 2. 18.). 울산교육청, 아동성추행 동화작가 책 열람 제한. 울산매일.
출처: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756

이명희 (2004). 도서관에서의 지적자유 수호를 위한 노력과 금서에 관한 연구: 한국과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한국비블리아학회지, 15(1), 193-216.

이승호 (2024. 4. 23.). 책으로 쪼개진 美…파란 주는 '금서' 금지, 빨간 주는 '사서' 처벌. 중앙일보.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408

이우연 (2024. 10. 22.). [단독] 경기교육청 "유해도서 제거" 공문에, 한강 작품 열람 제한. 한겨레.
출처: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3653.html

이채윤 (2024. 10. 23.). 일부 학부모 단체 "'채식주의자'는 유해물…학교 도서관 배치 반대". 강원도민일보. 출처: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2022

장덕현 (2011). 장서개발에 있어서 지적자유의 문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2(1), 165-182.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0260호.

정인화 (2021. 2. 19.). 성북구립도서관 '아동성추행' 한예찬 책 모두 열람제한. 국민일보.
출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52970

정현태 (2000).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지적자유에 대한 사례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1), 243-264.

정현태 (2001). 공공도서관의 인터넷음란물 이용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5(2), 41-58.

진보넷 (2025) 정보인권의 이해.
출처: https://guide.jinbo.net/digital-rights/freedom-of-expression-in-internet/goverment-review/

청소년보호법. 법률 제19841호.

최경식 (2023. 9. 13). [단독] 집단난교·'원나잇'...음란조장 도서, 초중고 도서관에 1200여권 깔렸다. 국민일보. 출처: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64113

최성철, 박한우 (2020). 토픽모델링 연구동향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22(2), 815-826.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2.81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법률 제19599호.

태원준 (2003. 6. 25.). 美 대법, 공공도서관 인터넷 음란물 차단 '합헌'. 국민일보.
출처: https://www.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20030625000001108

한국도서관협회 (2019. 2. 28). 도서관인 윤리선언.
출처: https://www.kla.kr/menus/80/contents?menuIds=67,80

한국도서관협회 (2024).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지적자유 가이드라인.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한국행정연구원 (2024). 2023년 사회통합실태조사.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홍순구, 임지원 (2021). 비정형 민원 데이터를 활용한 청소년 정책의제 도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LA (2025a). Intellectual Freedom.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

ALA (2025b).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

ALA (2025c). ALA Code of Ethics.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ethics

ALA (2025d). The Freedom to Read Statement.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freedomreadstatement

ALA (2025e). Interpretations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

ALA (2025f). The beginnings of the Children's Internet Protection Act (CIPA).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advleg/federallegislation/cipa/legislation

ALA (2025g). Internet Filtering: An Interpretation of the Library Bill of Rights.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librarybill/interpretations/internet-filtering

ALA (2025h). First Amendment and Censorship. Available: https://www.ala.org/advocacy/intfreedom/censorship

Asheim, L. (1953). Not censorship but selection. Wilson Library Bulletin, 28 (Sep 1953), 63-67.

Blei, D. M. (2012). Probabilistic topic models. Communications of the ACM, 55(4), 77-84.

Blei, D. M., Ng, A. Y., & Jordan, M. I. (2003). Latent dirichlet allocation. Journal of Machine Learning Research, 3, 993-1022. https://doi.org/10.1162/jmlr.2003.3.993

Cohen, H. & Minow, M. (2006). Intellectual freedom in libraries: then and now. Advances in Librarianship, 30, 73-101.

Dresang, E. T. (2006). Intellectual freedom and libraries: complexity in the twenty-first-century digital environment. Library Quarterly, 76(2), 169-192.

Gorman, M. (2015). Our Enduring Values Revisited: Librarianship in an Ever-changing World. Chicago: ALA.

Haynes, C. C. & Chaltain, S. (2003). The First Amendment in Schools: A Guide from the First Amendment Center. Alexandria, VA: ASCD.

Hossain, A., Karimuzzaman, M., Hossain, M. M., & Rahman, A. (2021). Text mining and sentiment analysis of newspaper headlines. Information, 12(10), 414. https://doi.org/10.3390/info12100414

IFLA (1999, March 25). IFLA Statement on Libraries and Intellectual Freedom. Available: https://repository.ifla.org/items/72090712-b389-450b-94df-e05fd6c582d4

Knox, E. (2014). Supporting intellectual freedom: symbolic capital and practical philosophy in librarianship. Library Quarterly, 84(1), 8-21. https://doi.org/10.1086/674033

Peet, L. (2025, Jan 10). Arkansas Act 372 Declared Unconstitutional in District Court. Library

Journal. Available: https://www.libraryjournal.com/story/arkansas-act-372-declared-unconstitutional-in-district-court

Pollak, S., Coesemans, R., Daelemans, W., & Lavrač, N. (2011). Detecting contrast patterns in newspaper articles by combining discourse analysis and text mining. Pragmatics, 21(4), 647-683. https://doi.org/10.1075/prag.21.4.07pol

Robbins, L. S. (1996). Censorship and the American Library: The American Library Association's Response to Threats to Intellectual Freedom 1939-1969. Westport: Greenwood Press.

Shoemaker, P. J. & Vos, T. P. (2009). Gatekeeping Theory. New York: Routledg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Law No. 20260.

Auh, Taik-Sup, Kang, Hyeon-Dew, Choe, Chung-Ho, & Ahn, Jae-Hyeon (2020). New Media in The Information Society (3rd ed.). Paju: Nanam.

Bae, Kyung Jae (2022). A field perception and agenda of intellectual freedom and censorship issues in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6(2), 277-294. https://doi.org/10.4275/KSLIS.2022.56.2.277

Chang, Durk Hyun (2011). Intellectual freedom issues in library collection develop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2(1), 1-18. https://doi.org/10.16981/kliss.42.1.201103.165

Choi, Kyung-sik (2023, Sep. 13.). [Exclusive] Group orgy, 'one-night'...obscene books found in over 1,200 copies in middle and high school libraries. Kukmin Ilbo.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8664113

Choi, Sung Cheol & Park, Han Woo (2020). A Study on the trend of topic modeling in South Korea using KCI journal publications.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 22(2), 815-826. https://doi.org/10.37727/jkdas.2020.22.2.815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 No. 10.

Gwak, Hye-jin (2021, Feb. 22.). Court prohibits publication of Ji Man-Won's new book claiming '5・18 involvement by North Korean army'. Seoul Shinmun. Available: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22500239

Hong, Soon-Koo & Lim, Ji-Won (2021). A Study on Developing the Youth Policy Agendas Using Unstructured Civil Complaint Data. Sejong: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Jeong, Hyun-Tae (2000). A study on the intellectual freedom in Korea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4(1), 243-264.

Jeong, Hyun-Tae (2001). A study on the internet pornography use policy in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5(2), 41-58.

Jeong, In-hwa (2021, Feb. 19.). Seongbuk district library places all books by Han Ye-chan, convicted of child sexual abuse, under access restrictions. Kukmin Ilbo. Available: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52970

Jinbonet (2025). Understanding Information Rights. Available: https://guide.jinbo.net/digital-rights/freedom-of-expression-in-internet/goverment-review/

Kim, Hae kyung (2011). A Study on Social Recognition of Library. Doctori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Kim, Hyang-mi (2016, Feb. 29.). Seoul city council to demand attendance from principals who refuse the pro-Japanese dictionary. Kyunghyang Shinmun. Available: https://www.khan.co.kr/article/201602292116245

Kim, Sin-Young (2024). Aspects of intellectual freedom restrictions in libraries and countermeasur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5(2), 189-217. https://doi.org/10.16981/kliss.55.2.202406.189

Kim, Yong-rae (2016, Feb. 25.). Schools follow suit in postponing purchase of pro-Japanese dictionary in Seoul. Yonhap News. Available: https://www.yna.co.kr/view/AKR20160225151100004?input=1195m

KLA (2019, Feb. 28.). Code of Ethics for Librarians. Available: https://www.kla.kr/menus/80/contents?menuIds=67,80

KLA (2024). KLA Library Intellectual Freedom Guideline. Seoul: KLA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2024). Korea Social Integration Survey. Seoul: Korea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Korea Publication Ethics Commission (2025). Subjects and Standards of Deliberation. Available: https://e.kpipa.or.kr/kpec/deliberation/kpec_deliberate_target.do

Kukmin Ilbo. (2025). Message from the CEO. Available: https://company.kmib.co.kr/company/

Lee, Chae-yoon (2024, Oct. 23.). Some parent groups oppose placement of 'The Vegetarian' in school libraries, calling it harmful. Kangwon domin Ilbo. Available: https://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72022

Lee, Da-ye (2021, Feb. 18.). Ulsan education office limits access to children's book by child sexual abuse author. Ulsan Maeil. Available: https://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1756

Lee, Myeong-Hee (2004). Libraries' efforts to preserve intellectual freedom and banned books.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5(1), 193-216.

Lee, Namho (2024). An analysis of research trends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using generative AI.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Network for Korean Language and Culture, 21(4), 159-182. https://doi.org/10.15652/ink.2024.21.4.159

Lee, Seung-ho (2024, April 23.). America split by books…blue states ban 'banned books', red states punish 'librarians'. JoongAng Ilbo. Available: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44408

Lee, Woo-yeon (2024, Oct. 22.). [Exclusiv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limits access to Han Kang's works in response to 'harmful book removal' notice. Hankyoreh.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1163653.html

Moon, Yeryung, Son, Gaeun, Nam, Geonuk, & Lee, Hanjin (2024). Research on constructing a sentiment lexicon for the F & B sector based on the N-gram framework.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29(10), 11-19. https://doi.org/10.9708/jksci.2024.29.10.011

Nahm, Choon-Ho (2016). An illustrative application of topic modeling method to a farmer's diary. Cross-Cultural Studies, 22(1), 89-135.

National Security Act. Law No. 13722.

Oh, Sang-do (2024, June 12). 'Sensational' vs 'excessive measures'…Gyeonggi-do schools discard over 2,000 gender equality books. Segye Ilbo. Available: https://www.segye.com/newsView/20240612517118

Park, Eunjeong & Cho, Sungzoon (2014). KoNLPy: Korea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python. Proceedings of the 26th Conference on Korean Language and Korean Information Processing, 133-136.

Park, Narae & Kim, Hangeun (2024). Research on keywords analysis and trend analysis of discussions on multicultural families in domestic media. Cultural Exchange and Multicultural Education, 13(3), 49-76. https://doi.org/10.30974/kaice.2024.13.3.3

Publishing and Cultural Industry Promotion Act. Law No. 19599.

Segye Ilbo (2019, May 14.). Distorted 5·18 books found in Gwangju universities and publ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segye.com/newsView/20190514505033

Song, Hyunkyung (2021, Aug. 26.). How should controversial books be served? The Naeil News. Available: https://www.naeil.com/news/read/397014

Song, In-gul (2023, July 26.). Group requests removal of gender equality books from library… Chungcheongnam-do governor says 'some materials will be restricted from viewing'. Hankyoreh.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area/chungcheong/1101840.html

Song, Min (2017). Text Mining. Seoul: Chungram.

Tae, Won-jun (2003, June 25.). U.S. supreme court upholds public library's internet pornography filter. Kukmin Ilbo. Available: https://www.kmib.co.kr/article/viewDetail.asp?newsClusterNo=01100201.20030625000001108

Yang, Seon-a (2023, Aug. 31.). Dooly, Mongshil Eonni were once banned books...Which banned books should we read this year? Hankyoreh. Available: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106532.html

Youth Protection Act. Law No. 19841.